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소식

제 51 호 / 2016년 9월 30일 http://gsph.yonsei.ac.kr



▲2015년도 MBO 최우수 기관 수상



▲2016년도 졸업생 사은회



▲2016년도 8월 학위수여식



▲2016년도 후기 오리엔테이션

CONTENTS

2p [기획특집 1] 노재훈 보건대학원장 연임
3p [기획특집 2] 국제보건 전문가과정
4p 신임 연구교수 소개/ 외국대학 교수 및 학생 방문 소식
5p 신임 연구교수 소개
6p [졸업생/ 신입생 한마디] 김수종/ 이혜연
7p [재학생 근무기관 소개] 박단비(보건통계학과)
8~9p 보건대학원 소식
10~12p 학과 소식
13~14p 고위과정·전문가과정 소식, ICUH 소식
15~17p 교수 동정
18~19p 총동창회·동문·총학생회 소식
20p 공지 사항/ 학사 안내

발행인 : 노재훈 보건대학원장 / 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상규 부원장 /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 김태현 / 편집위원 : 박소희, 김태현, 김기량
기자 : 유영선, 김기량, 최영, 최윤수, 김은지, 양지현, 전주은, 황세미, 길하영, 박해리, 김성훈, 김효정, 이현정, 이재은, 백상숙, 한민경, 선지유
총학생회장 문희영, 동창회장 조경희, 동창회 사무국장 강성원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전화 : 02)2228-1506~7 팩스 : 02)392-7734

발전하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노재훈 보건대학원장 연임



보건대학원 가족 여러분! 지난 2년에 이어 앞으로도 2년 동안 보건대학원장을 맡게 된 노재훈입니다. 우리 보건대학원은 개원 후 40여 년 동안 연구와 교육, 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보건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원은 개원 목적인 보건연구와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면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학원의 발전방향과 특성화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성화 분야를 마련하고 설립 정신에 기반한 학위, 비학위 보건학 교육과정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임교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성화 분야별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 내용을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보다 풍성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요 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융합연구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대학원 교수, 학생, 연구소의 연구 활성화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보건대학원 학과 간, 의료원, 의/치/간호대, 지역사회기관, 국가기관 및 국책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대학원생 연구력 강화 지원을 위해 교내외 논문상, 공모전 참여 독려,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 제고 및 학생, 교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강의실 환경개선, 총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특성화해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에 입각해 기독교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선교 과목개설과 보건의료선교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 본교와 보건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과 의료원의 실무 현장을 접목한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병원경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의료 경영 및 정책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국민 안전과 국가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 대학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의 기업 맞춤형 교육실현을 목표로, 산업체 맞춤형, 즉 기업 수요지향적 안전보건 전문인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보건의료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우선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근거 생산과 적용이 중요해 짐에 따라 역학건강증진학과와 보건통계학과의 역할도 더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학과 간에, 그리고 타 분야와도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학위과정 뿐 아니라 계약학과를 설치해 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비학위과정으로서 보건의료정책과정, 고위과정, 국제보건전문가과정, 국제사이버보건대학교(ICUH)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 개발된 콘텐츠는 전문인력 재교육뿐만 아니라 학위과정에도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건대학원 구성원 여러분! 내년이면 보건대학원이 설립된 지 정확히 40주년이 됩니다. 우리 대학원이 지난 40년간 이룩해 온 업적 보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이뤄지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보건 전문가과정(2016.3.5~5.20)

제1기 국제보건 전문가과정이 2016년 3월 개설되었다. 본 '지식기반 공적개발원조 훈련' 과정은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대학원, 의과대학 교수진 및 기타 초빙강사들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공적개발원조분야 및 국제보건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 연구자, 학생 등 14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지식기반 공적개발원조 훈련' 과정에서는 지식기반공적개발원조의 핵심원리, 한국 공적개발분야 전문가들의 사업 수행 경험 공유, 이론교육 및 그룹토의등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2016년 3월 5일(토)부터 5월20일(토) 총 12주 동안의 과정을 총 14명이 모두 수료하였다.

국제보건 전문가과정은 국내 보건의료인력 중 국제보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매학기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학기에 이어 'ODA 평가전문가 과정' 이라는 제하로 제2기 국제보건 전문가과정이 2016년 9월 10일(토)부터 12월 17일(토) 총 8주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평가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제1기 전문가과정 졸업생〉



〈2016년-1학기 전문가과정 그룹토의〉



〈2016년-1학기 전문가과정 기술워크샵〉

밝은 에너지 나누는 보건대학원 가족으로



연구교수 김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가을 냄새가 묻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연구교수로 근무하게 된 김지만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며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하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흙을 뚫고 새싹을 돋아나게 하는 힘이 있는 봄과 계절의 의미를 넘어 한 해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가을 모두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사람 또한 다양한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합니다.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아이들의 웃음, 오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귓가를 맴도는 음악, 부드러운 저녁 바람 냄새, 어두운 도시를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들과 같은 사소한 것들로부터 기쁨과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자신을 활기차고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문제만을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기회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자신 안에 숨어있는 에너지와 가치를 고갈시켜 버리기 보다, 자신이 정한 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부지런한 움직임이 있다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날 제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현실은 자신이 생각한 데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부지런한 움직임이 있다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멋지게 진행될 것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그대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에너지는 모두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봄에 아스팔트 위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힘, 가을의 푸르른 생동감과 같은 에너지를 보건대학원에서 얻고, 모두에게 밝은 에너지를 나누는 보건대학원의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대학 교수 및 학생 방문 소식

3월 7일에 미국 Drew University의 안젤라 손 교수와 학생 등 20여명이 우리 대학원을 방문하였다.

김태현 교수가 '한국의 의료제도'에 관해 강의하였고, 본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이대성 목사도 함께 하였다.

방문단 일행은 발전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의료원의 여러 곳을 방문하였다.



배움과 성장의 시간 새로운 도약의 발판



연구강사 홍세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 간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2016년 3월부터 보건대학원 연구강사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은 홍세리입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귀하게 허락된 자리에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2013년 3월, 처음 이 곳 연세대학교의 문을 두드려 첫 만남을 가지게 된 이후로 벌써 훌쩍 시간이 흘렀습니다. 낯설고 설레기만 했던 종합관, 병원, 캠퍼스라는 공간이 어느 새 익숙하고도 애틋한 곳으로 제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담고 있는 이곳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반성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10여년 전- 눈앞의 것들만 쫓아가기에도 벅찼던 학부 시절이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생기는 여유와, 또 주변에서 함께 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은 저로 하여금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조차 없었지만, 그 때의 마음들과 다짐들은 몇 년 후 제가 실제 진로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기만 했던 생각들을 좇아 결국 이곳에 오게 된 저에게, 예전의 그 다짐들, 부끄러울 정도로 철모르던 그 생각들은, 지금 현재를 사는 제가 때때로 돌아가 붙잡을 수 있는 방향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외딴 우물가를 찾아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는 돌아간다는 어느 시인의 고백을 읽으며, 내가 때때로 나를 비추어보곤 하는 그 거울은 제게는 우물이라기보다는 바다 같게만 느껴져서, 물이 너무 넓고 깊어서 캄캄하기만 하고 내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때로는 막막함에 부딪히기도 하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 오는 동안 많은 선배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가르침과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고, 특히 보건대학원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더욱 폭넓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넓게 보고 멀리 뛰기 위해, 보건대학원을 선택하고 그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학문적인 연구에서건 대외적인 활동에서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과 안녕이라는 큰 가치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교수님들의 모습 또한 충분한 귀감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곁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도 어느새 조금씩 성장하게 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분명 많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보건대학원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배우고, 또 조금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갖고 올 한 해를 더 보내게 되면서, 이런 저의 생각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자세로 배움과 일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 보고 배운 대로, 저도 그렇게 주변의 동료들과, 또 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해 다듬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학부 시절 썼던 일기장을 다시 들춰 보았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이지만, 저에게는 늘 크고 묵직하게만 느껴지던 책이었습니다. 그 때의 꿈과 각오가 여과없이 담겨 있는,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조차 버겁게만 느껴지던 바다 같은 무게추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바다가, 어둡고 캄캄한 물이 아닌 맑고 푸른 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은 여전히 아득히 깊고 넓기에 겁이 나기는 하지만, 들어가서 내 몸을 담궈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용기를 내어, 얼굴도 한 번쯤 비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바닷가에서,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해변을 거닐고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이 공간에서의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간직한 채, 앞으로의 길을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보건인의 자긍심

졸업생 / 김수종 (병원경영 전공)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졸업 동기 여러분. !

우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에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이제 동문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지요.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년 전 처음 이 곳에 발을 내딛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이라는 울타리는 우리에게 설레임과 애틋함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원 생활이 이제는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건대학원의 모든 교수님들께서 계십니다. 그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정성으로 저희 모두는 졸업이라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학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휴학을 고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신 분들이 바로 교수님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 교수님.

교수님들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대학원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연세보건인의 자긍심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신입생 / 이혜연 (국제보건학 전공)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국제보건' 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인 '국제보건' 을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었습니다.

간호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한 해외의료봉사팀에서 저는 보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당연히 주어졌던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나라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의료기관 등이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코이카, 예방의학교실 등에서 겪어보고 살아보고 일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제 1기 국제보건전문가과정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3개월 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명 남짓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국제보건' 이란 국가, 인종, 문화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모든 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움직임이라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부' 를 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에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2016년 후기 국제보건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제가 가졌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고민하며 각 나라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해 폭 넓은 지식 및 연구경험을 쌓겠습니다. 석사과정이 끝난 후 현장에서 모든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국제보건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임상 CRO에 첫발을 내딛다



보건통계학과 박단비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통계학과 1학기 박단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하철에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하는 곳이 그러한 모집 공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GDFI브레인셀연구소라는 임상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전문수탁기관) 입니다.

보건대학원에 들어와서 제 근무지 업종인 임상 CRO를 언급했을 때, 의외로 임상 CRO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임상 CRO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 임상기술 요구되는 글로벌 성장 업종

임상 CRO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하여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자에는 보통 제약사, 의료기기회사가 해당이 되는데 개발한 제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MFD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 중에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상 CRO산업은 새로운 바이오 신제품(제약, 의료기기, 바이오벤처)의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전문 임상기술이 요구되는 글로벌 미래 성장 동력 업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은 임상시험의 디자인 개발, 임상시험 진행 관리 및 모니터링, 자료관리 및 처리, 통계분석과 Medical writing(결과보고서)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주)GDFI브레인셀연구소는 위와 같은 임상시험의 전과정(Full scope)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임상 CRO의 법인회사로서, 세부 분야로 부서가 구분되는데 BD/MP(사업 개발), RA&MA(임상시험 디자인 개발, MFDS 승인업무 및 Medical Writing), CR(임상시험 모니터링), CDMS(임상자료 web개발 및 data처리), STAT(통계업무)과 이러한 전체 업무의 품질보증관리를 위한 QA부서가 있어 의뢰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적응증·임상단계 접해 실무경험 풍부

그 중 제가 소속된 STAT 부서는 통계 분석 디자인 개발, 시험대상자수 산출, 무작위배정코드 생성 및 관리, 통계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CRO에 근무하면서 좋았던 점은 회사 안에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관련 부서들이 모두 모여 있어서, 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적응증과 임상단계를 접할 수 있어서 매번 새로운 것을 배워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평소에 알고 싶었던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보건대학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CRO의 STAT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연구에 같이 참여는 하지만 직접 접촉할 일이 많지 않은 연구간호사, 의사 선생님 등 업무로는 만나기 힘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워크샵, 수학여행 등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인연이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배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학우님들과 항상 열정적인 강의로 감동을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연세의료원 기관별 MBO최우수 기관 선정



▲정남식 의료원장(왼쪽)과 노재훈 보건대학원장.

2015년도 기관별 MBO 평가결과 보건대학원과 암병원, 심장혈관병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원은 지난 3월 25일 암병원 서암강당에서 기관별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남식 의료원장을 비롯한 행정책임자 및 주요 보직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는 대학, 병원, 행정부로 나눠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보고했다.

대학 · 단위병원 · 전문병원 부문으로 나눠, 운영지표와 기관별 전략지표의 달성률을 평가한 기관별 MBO 시상식에서 대학 부문에는 보건대학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대학원은 △관리운영비 절감, 재정자립도 4개 교육기관 중 1위 △연구과제 수주증가, 역학건강증진과 연구성과 증대 △전임교원 외부봉사활동건수 증가에서 높은 실적을 거뒀다.

단위병원 부문에서는 암병원이 선정됐다. 암병원은 △의료수익 증가 △기부금모금액 목표달성률 9개 진료 기관 중 1위 △조기진료율 증가 등의 실적을 거뒀다.

전문병원 부문에서는 심장혈관병원이 선정됐다. 심장혈관병원은 △진료협력센터 이용, 진료결과 회신 만족도 증대 △교육학점 이수율 증가 △의료질 상승 등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남식 의료원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세브란스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부서를 이끌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 2016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실시

2016학년도 후기 입학시험이 지난 5월 28일(토) 보건대학원 각 강의실에서 전공별로 실시되었다. 9개 전공에 55명(정원 50명, 정원외 5명)을 선발하는 이번 입시는 146명이 지원하여 2.82 : 1 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합격자발표 : 2016. 6. 13(월)

3.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월19일(금)부터 1박2일간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신입생, 재학생 및 교수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첫날 행사에서는 노재훈원장, 동창회장 및 총학생회장의 환영사와 총학생회 주관으로 환영식이 진행되었다. 2일째에는 홍보영상 감상과 학칙 및 제반학사 안내의 시간을 가졌다.

4. 2016년 8월 졸업생 사은회



2016년 8월 졸업생 사은회가 지난 8월24일(수) 동문회관 중연회장에서 졸업생 및 교수진 등 8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수종 졸업생대표(병원경영)의 감사의 말과 노재훈원장의



격려사로 진행되었으며, 단체촬영, 전공별 기념촬영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또한 졸업우등상 시상식에서는 김의철(최우등, 병원경영) 졸업생외 9명이 수상하였다.

5. 2016년 8월 학위수여식



2016년 8월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26일(금) 11:00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우리대학원은 석사과정 61명의 보건학석사를 배출하였다.

6. 컴퓨터실 컴퓨터 및 보건대학원 교탁 컴퓨터 교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컴퓨터실 컴퓨터 및 교탁 컴퓨터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208호 컴퓨터실모니터 및 본체 60대 , 보건대학원의 교탁 컴퓨터 10대 및 교탁 책상 e-station 교체가 진행되었고, PC 복구 프로그램인 PC keeper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한 통계 실습이 가능하게 되었고, 통계 패키지의 안정적인 구동, 빅데이터 분석 속도 및 효율 강화 그리고 안전한 pc 관리 및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 병원경영학과


▲병원경영 개강 총회

- 2016년 3월 16일 이상규 교수님 승진 축하 및 2016년 병원경영 개강총회를 하였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며 다같이 열심히 학업을 하자는 의미로 교수님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의기투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행사

- 2016년 5월 10일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하였습니다. 병원경영 재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병원경영학과 춘계산행

- 2016년 5월 14일~15일 1박2일로 강촌 삼악산에서 병원경영학과 춘계산행을 하였습니다. 학교 밖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교수님과 재학생들이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생 환송회·신입생 환영회

- 2016년 8월 26일 졸업생 환송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졸업생들에게는 축하 인사와 앞으로 함께 공부할 신입생들에게는 환영의 인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 보건정책학과

- 2016년 5월 10일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정책관리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박은철 교수님, 정우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행사

- 정책관리전공은 교수님들과 주기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합니다. 교수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자리가 종종 마련되었습니다.



■ 국제보건학과

- 지난 5월 16일(월)부터 5월 21일(토)까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가나 볼타지역 보건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초청연수는 국제보건전공 김소윤



▲가나 보건기관 관계자와 국내 초청 연수 진행

교수가 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는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PMC인 한국국제개발연구소와 함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였다. Joseph Teye Nuertey(가나 볼타 보건청장), Catharine Obosu(볼타지역 간호국장), Joseph Kwami Degley(Ketu South 보건국장), Andrews Ayim(Keta 보건국장), Doris Quame(Ketu North 보건국장)과 같이 총 5명의 가나 볼타지역 보건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 연수단은 유승흠 교수, 김의숙 교수, 남은우 교수 등 저명한 전문가들로부터 한국 보건 발전 배경 및 보건체계, 일차보건의료체계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선진화된 한국 보건 시스템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연세세브란스병원, 강동구 보건소, 분당 차여성병원, 분당 차바이오 콤플렉스, 원주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실제 한국의 1~3차 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파악하고 가나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질병관리본부, 결핵연구원과 같은 보건의료관련 기관을 견학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소개 및 한국사 강의, 한복입기 체험 등을 진행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본 초청연수를 통해 연수단은 모자보건에 대한 사업추진 능력 제고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향후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역학건강증진학과

- 2016. 3. 11. 신촌 메가박스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학과 번개모임을 진행, 연세대학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리며 연세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 2016. 3. 18. 제 30차 학과 세미나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가 '역학연구에서 Trajectory model의 활용'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 하였습니다.

- 2016. 4. 8. 제 31차 학과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미영 팀장이 '역학연구와 GRADE방법론 적용'에 대한 특강을 진행 하였습니다.



▲2016 역학건강증진학과 Summer research day

- 2016. 6. 10. 제 32차 학과 세미나에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Dr. Endang Widiastuti Handzel이 '재난 이후 모자보건 체계 재건 사업-아이티 사례'에 관한 특강을 진행 하였습니다.

- 2016. 6. 17. 제 33차 학과 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이승태 교수가 'Epigenetic Changes in Development, Cancer and Epidemiology'에 관한 특강을 진행 하였습니다.

- 2016. 7.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종합관 337호에서 2016년도 역학건강증진학과 Summer research day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재학생 주관으로, 전공 분야 지식의 폭을 넓히며, 학과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되는 우리 학과 자랑거리 중 하나인 이번 SRD에는 지선하 교수, 김희진 교수, 동문 및 재학생 약 40명이 모여 학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선후배 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보건통계학과



▲2016 보건대학원 춘계산행

- 2016년 3월 11일(금) 신촌 행복식당에서 보건통계학과 2016-1학기 개강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정모 교수님, 박소희 교수

님과 신입생, 재학생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학생, 선후배들의 더욱 구체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보건통계학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논문 본 심사 합격자들

- 2016년 4월 9일(토) '2016년 보건대학원 춘계산행' 이 동작충효길 2코스, 7코스가 있는 동작역에서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재학생들이 푸른 자연 속에서 함께 교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2016년 6월 9일(목) 보건정보관리 전공 차윤혜, 이정호, 서범준, 강정모 학생과 보건통계 전공 홍보영, 원보윤 학생이 졸업논문 본 심사에 합격하였습니다.

- 2016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하계 세미나 및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보건통계학과의 남정모 교수님, 박소희 교수님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졸업생들이 논문작성 에피소드 및 팁을 공유해 주어 재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화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계 보건통계학과 발전세미나

■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 2016년 6월 9일 최현우, 이상준, 이쁘니 학생의 졸업 논문 본 심사에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 2016년 7월 1일~2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숲속의 아침' 펜션에서 산업보건학과 교수님, 재학생, 졸업생, 입학예정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MT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산업보건학과 MT

- 2016년 7월 4일~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에 산업보건학과 교수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가하여 산업보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6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 2016년 8월 17일~19일 한국산업보건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최현우 학생이 '사무실 내 라돈 농도에 관한 연구' 로 구두발표 하였습니다.

▲환경보건전공

- 2016년 4월 1일 신촌 명가보쌈, 에스터데이에서 재학생들과 교수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동천 교수님, 임영욱 교수님, 양지연 교수님과 재학생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6년 5월 13일, 스승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동천 교수님, 김창수 교수님, 임영욱 교수님, 신입생, 재학생이 모였으며, 교수님의 덕담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

NEWS

고위·전문가과정 (2016. 2.1~2016. 8.31)

1. 제 29기 고위과정 '의료혁신과 미래경영' 입학식

(4월 4일(월) 오후 6시)

· 과정생 : 27명
· 기 간 : 2016년 4월 4일 ~ 2016년 7월 18일 (16주 과정)
· 장 소 : 종합관 3층 303호 (고위과정실)



◀제 29기 고위과정 '의료혁신과 미래경영' 입학식

2. 제29기 고위과정 '의료혁신과 미래경영' MT

(2016년 4월 15일(화)~16일(토))

· 장 소 : 천리포수목원 에코힐링센터
· 참 석 : 18명 (인솔 : 유승흠 담임교수)
· 특 강 : 와인과 건강 (김문식 전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고위과정 '의료혁신과 미래경영' MT

3. 제29기 고위과정 '의료혁신과 미래경영' 총장공관 만찬

(2016년 5월 23일(월))

· 참 석 : 30명 (부부동반 참석)



NEWS

4. 제29기 고위과정 '의료혁신과 미래경영' 해외연수
(2016년 6월 3일(금)~ 5일(일)

· 장 소 : 일본 삿포로
· 참 석 : 21명 (인솔 : 유승흠 담임교수)



5. 보건의료정책과정 해외연수
(2016년 6월 23일(목)~ 7월 4일(월))

· 장 소 : 동유럽 발칸
· 참 석 : 16명 (사무팀 1명 포함)



6. 제29기 고위과정 '의료혁신과 미래경영' 수료식
(2016년 7월 18일(월))

· 장 소 :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본관 2층 '플라밍고룸'
· 참 석 : 40명 (부부동반)
· 특 강 : 정남식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국제사이버보건대학(ICUH)

1. 2016년 봄학기에 credit을 받은 학생은 총 11명입니다.
2. 2016년 4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국제사이버보건대학 봄학기가 진행되었습니다. Research Methods in Health(Prof. Young Moon Chae), Biostatistics (Prof. Sohee Park), Interna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f. Tomiko Hokama), Health Promotion (Prof. Hee Jin KIm), Bioethics and Health Law (Prof. So Yoon Kim) 총 5과목의 강의가 개설되었고 총 1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PEOPLE & PEOPLE

■ 노재훈 교수

• 2016년 2월 11일~14일 Minamata Disease Research Center, Minamata City, Kyushu, Japan에서 개최한 한국-일본 참여형 개선활동훈련(PAOT-OSH)을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회장으로 주관하시기 위하여 해외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6년 5월 18일 중국에서 개최되어진 28th China_Japan_Korea Joint Conference on Occupation Health에 참석해 '한국의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현황'에 관한 Keynote speach를 하였습니다.

• 2016년 8월 17일~18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6년 9월 4일~8일 Spain, Barcelona에서 열린 25th Epidemiology in Occupational Health Conference에 참가하여 'The effects of job demand and control on occupational injuries among Korean EMS workers' 외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우진 교수

• 지난 4월 개최된 (사)한국규제학회 특별세미나 "헬스산업혁신을위한 제도의 지향과 개인정보보호규제개혁방안'에서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국가간 건강보장제도 성과비교 및 성인 비만 등 건강수준 결정요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소윤 교수

• 환자 안전 분야에서 7월29일 시행예정인 '환자안전법' 제정에 기여를 하였으며, '미래 안전 사회를 위한 의료 환경 및 법 ·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원인파악과 재발장지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2차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환자안전학회 환자안전교재 출판 및 대한의사협회 환자안전 교육자료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바이오정책 분야에서 'ELSI 센터(Center for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에 관한 논문이 「비판사회정책」에 게재하였습니다.

• 국제보건 분야에서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ASEAN University Network-Quality Assuranc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 참여와 관련하여 Universitas Indonesia, Depok Campus를 방문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전염병관리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포충증 사업 분야 중간평가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지역보건의료학회(APACPH) ECM에 참가하였으며,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올해 9월 제48회 아시아태평양지역보건의료학회(APACPH)가 진행될 예정인 일본 동경의 Teikyo Univerisity 사전 방문하였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고위급 관계자 초청연수를 진행하였으며,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WHO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2016년 보건대학원 베트남 수학여행 인솔교수로 동행하였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WHO WPRO 방문 및 제2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회의원 국제보건 포럼 준비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장애인 국제지원사업 중장기 계획 개발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 통일보건 분야에서 7월 1일 연세대학교 유일한홀에서 진행된 '2016년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아주남북한의료연구소에서 발주한 '북한의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 고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무임소이사,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 및 보건복

PEOPLE & PEOPLE

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자문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 통일보건의료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 김태현 교수

•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주한 '국립암센터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발주한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병원경영학회 편집부회장, 한국보건경제 · 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외 논문을 Int J for Equity in Health, Int J for Social Psychiatry, BMC Public Health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내 논문을 병원경영학회지와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김희진 교수

• 질병관리본부의 가향담배와 흡연에 대한 조사를 맡아 수행 예정으로 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사업전문가과정 평가체계 구축 연구와 식약처 담배제품 역학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5월22일~26일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열린 국제건강증진연맹학회(IUHPE)에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2건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 남정모 교수

• 2016년 현재 대외활동으로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식품의약안전처, 심사평가원 등에 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러 임상분야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8편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 박소희 교수

• 2016년 6월 대한암학회에서 'Inequality in cancer statistics in Korea', 7월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워크샵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비용-효과 분석 사례', 7월 국민건강영양조사 워크샵에서 '영양자료 분석 시 통계적 고려사항' 이란 주제로 다양한 구연 발표를 하였습니다.

• 교내에서는 빅데이터활용 위원회, 보건대학원 IRB의 전문간사,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 병원 IRB의 통계전문심사위원으로, 교외에서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위원,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대한보건협회 이사, 중앙암역학조사반 반원,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영양학회 표준화제정실무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BMJ Open, Can J Psychiatry, Int J Geriatr Psychiatry, BMC Cancer, PLoS ONE 등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였고, 국책연구과제인 '잠복결핵 검진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비용-효과 분석 연구'를 총괄 수행하였고 이밖의 과제(경찰청 건강 연구,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조사 및 이슈 발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은철 교수

• 2016년 4월 22일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NCD 시대의 의료공급 적정성'과 '왜 입원환자 전담의인가?'를 발표하였고, 6월 10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6차 학술세미나에서 '보건의료 현황과 미래방향'를, 대한암학회 42차 학술대회 국제암컨스런스에서 'Universal health coverage of cancer in Korea: Prospect and challenge'를, 6월 12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발전방향'를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학원 보건학과 주임교수,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전공지도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및 정책개발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위원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및 포괄수가제 시민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및 KHC

PEOPLE & PEOPLE

학술프로그램위원회 위원, 한국의료지원재단 지원위원회 위원, 대한예방의학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제도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 대한보건협회 이사, 제24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APCC) 사무총장,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6년 7월말까지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학술논문은 국내잡지 7편, 국제잡지 58편이며, 현재 3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천 교수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의 소장,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장, 한국환경한림원 학술위원,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한국녹색병원학회 회장, 위험통제학회 회장,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환경보전협회 이사, 국제위해성분석학회 한국지부 회장,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의장, 세계의사회 이사,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인근 주변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통해 약 10년간 환경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각장의 영향 여부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수행하여 위해 의사소통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건강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환경공해연구소 소장으로써 다수의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위해 의사소통 관리체계 구축 및 인체 노출량 추정 과제, 식품 내 함유 중금속 노출 영향 평가 과제, 먹는 물의 수질기준 검토 과제, 생활화학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과제, 화평법상 허가 및 제한 금지물질 지정 확대 과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과제, 착향료 허용물질 조사 과제 등 다수 연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종욱 교수

• 2016년 4월 8일~9일 홍콩에서 개최되어진 International symposium on Work injur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2016에 참가하여 Worker's compensation and return to work in Korea, Quality evalu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hospital in Korea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연구과제 '장애평가기준 변화에 따른 산재장해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규 교수

• 의료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신사업단의 단장으로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규모의 '(가칭)세브란스칭다오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내최초의 환자경험 및 병원혁신 관련 컨퍼런스인 HiPex 2016 및 순천향대학병원, 동국대학병원 등 다수 병원의 초청을 받아 미래의료와 병원산업에 대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필리핀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Health Policy, BMJ Open 등에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일학 교수

• 2016년 9월 1일부터 Visiting Research Fellow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의학윤리센터(Centre for Ethics in Medicine, University of Bristol, UK)에서 연수 중입니다.

■ 지선하 교수

• 2016년 현재 대외활동으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교내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학과 주임 교수 및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 발주기관 보건산업진흥원, 식약처, 암센터 등의 연구과제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로 다수 국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보건학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2016년도 연세대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주요 행사계획

1. 동창회원 활동

가. 조찬(석찬)세미나

○ 통일을 주제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조찬 세미나

- 제3회 : 전우택 교수 초청 강연 (6/9(목) 오전 7:30, 상남경영원)
- 제4회 : 이혜경 박사 초청 강연 (9/22(목) 오전 7:30, 상남경영원)

나. 동문 사업장 방문

○ 대한병원협회 방문 예정 : 10/28(금)

다. 정기산행

○ 춘계산행(동창회 주관) : 4/9(토) 오전 10시, 현충원 둘레길

○ 추계산행(학생회 주관) : 10/29(토), 북한산

라. 2016 대학원 연합 모임 Remember Yonsei : 재학생, 졸업생

○ 2016년 10월 15일(토) 오전 10시30분, 백주년기념관 및 총장공관 뜰

마. 연세보건인의 밤 행사

○ 시기 : 2016년 12월 5일(월요일 오후 6시)(매년 12월첫번째 월요일)

○ 장소 : 연세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

바.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온라인 소통공간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roups/gsphyonsei/

○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gsphyonsei/

2. 연세대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회비 임금 안내

가. 정기 회비

○ 연회비 분담 : 회장, 고문, 자문위원 50만원 이상, 부회장 30만원 이상,
이사, 사무국 요원 10만원 이상, 회원 5만원

○ 특별 회비 : 연세 보건인의 밤 등 특별 행사시 찬조 및 협찬

나.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계좌

○ **기업은행(IBK) 527-019229-01-012, 윤수진(연대보건대학원동창회)**

3. 기타 동창회 활동

가. 2017년 보건대학원 설립 40주년 기념 주소록 발간.

○ 연락처 파악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동문 경조사 지원 : 근조기 2개 운용(플랙하이웨이)

다. 동창회 사무실 및 연락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사무국)

○ 담당자 : 국장 강성원(姜星元) 010-3741-3972, kangseongweon@gmail.com

○ 주 소 : (0372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대동문회관 2층

○ 연락처 : Tel.:02-312-6879 Fax.:02-6008-7928 E-mail: vvsltsle@chol.com

보건대학원 제39대 ~제40대 총학생회

(2015. 3. 1 ~ 2016. 9. 1)

1. 2016년도 총동창회-총학생회 주관 춘계산행

일시 : 2015년 4월 9일(토) 10:00 ~ 14:00
참석 : 재학생, 동문, 교수진 약 120명 참여
장소 : 동작충효길 2코스, 7코스



2. 스승의 날 행사(5.10~12)

- 각 전공 교수님께 카네이션 및 선물 전달





3. 제3회 대학원연합회 자선바자회(5.28)

- 소아암환우를 돕기위한 자선 바자회 참여





4. 2016년도 하반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6년 8월 19일(금) 15:00 ~ 20일(토)
참석 : 2016년 하반기 신입생, 교수님, 조교 및 재학생 약 110명 참여
장소 :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
내용 : 교수님-학생간 상호 첫 만남의 시간, 보건대학원 학사 일정 및 학생회 소개,
각 전공 및 기수별로 친목의 시간을 가짐

공지사항 · 학사안내

1. 2016-2학기 주요일정

1) 학위논문 심사기간

* 예비심사 : 10.17(월)~21(금)

* 본심사 : 12.5(월)~9(금)

2) 2016년 가을산행(총학생회주관) : 11.5(토)

* 산행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총학생회에서 공지 예정

3) 2016-2학기 채플 : 10.12(수) 18:30 종합관 331호 강의실

4) 2017-전기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11.2(수)~4(금)

* 면접고사 : 11.26(토) 13:00

5) 2016년 연세보건인의 밤 : 12.5(월) 18:30 동문회관 대회의장